

2019학년도 하계 필리핀 단기어학연수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파견국가	필리핀	파견도시	수빅
파견대학	바탄반도주립대학	기간	2019. 6. 22. ~ 7. 19.

2. 파견대학, 수업, 필드트립 등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해 서술해주세요. 대학교라기 보다는 어학원에 가깝습니다. 수빅에 위치해있고 5층짜리 건물에 기숙사와 클래스룸들이 다 같이 있어요. 그리고 식당 겸 강당으로 쓰는 건물이 하나 더 있었고 귀여운 고양이들이 많았습니다. 일대일 선생님들이 엄청 많이 계신데 모르는 선생님이더라도 마주칠 때마다 인사하고 반갑게 대하면 또 반갑게 맞아주셔서 기분도 좋고 분위기가 정말 좋다고 느꼈습니다. 매 주 화요일마다 오후에 액티비티가 있어서 다른 선생님과도 어울려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뛰는 등 활발한 활동을 많이 해야해서 가끔 액티비티보다 수업을 하고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같은 배치 친구들과는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되고 룸메나 클래스 메이트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됩니다. 원래 있던 곳에 일주일정도 살다가 건물에 이상이 있다고 갑자기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룸은 좋았으나 다 같은 장소에서 파티션을 쳐놓고 그룹수업을 하고 일대일 수업도 모두 같은곳에서 해서 어수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같은 곳에서 수업을 듣는게 더 재밌기도 하고 친해지기도 더 좋긴 했어요.
수업	수업내용, 수업방법, 강사, 과제, 수업준비 등 수업 전반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 수업은 일대일 4시간, 그룹수업 4시간 이렇게 총 8시간을 듣게됩니다. 50분 수업하고 10분은 쉬는시간인데 계속 영어를 써야하고 연속적으로 수업을 듣다 보니까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다들 10분 쉬는시간에 조금이라도 누워있다 나오려고 방에 꼭 들어갔다가 수업 1분전에 또 다같이 나와서 가는 웃긴 풍경을 맨날 볼 수 있습니다. 1대일 수업은 리딩수업 두시간, 단어 수업 두시간씩인데 매 시간 선생님들이 달라요. 선생님은 안맞으면 바꿀 수 있는데 전 선생님들 모두 좋아서 바꾸진 않았어요. 수업 첫 날은 진도 만나가고 자기소개 하는데 누구한테 무슨말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일대일 선생님들 4명에게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하게됩니다. 맨 처음에 레벨 테스트를 보는데 문법,

	단어, 듣기, 말하기 등 전체적인걸 봅니다. 이 레벨 테스트로 5명씩 나눠서 그룹 수업을 하는데 1등부터 5등까지 클래스는 선생님들을 조금 더 신경써서 붙여주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전체 선생님들 중 진짜 소수를 제외하고는 선생님들 모두 훌륭하시고 너무 좋으신 분들입니다. 가끔 수업하기 힘들 땐 수업보다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수업은 수업보다 이야기를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일대일 수업 때는 이야기 하면서 영어가 더 많이 늘고, 선생님과 더 많은걸 나눌 수 있어서 이야기 많이 하는게 좋은 것 같아요. 가끔 이야기로 때우려고 해도 수업해야 한다고 진도 나가시는 선생님도 계세요. 그룹 수업은 토익 스피킹, 페이스 투 페이스, MMC 이렇게 있는데 토익스피킹 수업만 두 번 들어요. 토익 스피킹은 파트별로 모의고사를 보는데 모의고사 보는 시간엔 자기 시간 빼고는 자유시간이라 행복했습니다. 페이스 투 페이스는 어떤 내용을 읽고 문제를 푸는데 다른 수업들에 비해서는 그나마 문법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저희 클래스는 게임을 주로 해서 진도를 많이 나가지 못했어요. MMC는 광고와 뮤비를 찍어야 해서 한 이주 정도 진도 나가고 나머지는 MMC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MMC광고랑 뮤비 찍는게 제일 힘들었어요. 추억도 많이 남긴 하지만 마지막 주에 더 많은 추억을 만들고 싶을 때 이거 하느라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미리미리 하는게 좋아요.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미리 연습해가면 수월할 것 같습니다.
필드트립	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Activit(필드트립)에 대해 서술해주세요. - Activity 종류, 내용, 준비물, 추가비용 여부 등 액티비티는 토요일마다 나가게 되는데 클락투어, 화이트 코랄 비치 리조트, 마운트 사맛, 요트투어, 이렇게 네 번 나갔는데 클락 에스엠몰에는 더 바디샵, H&M, 미니소, 코코 등 하버포인트나 올롱가포 에스엠몰에 없는 매장들이 있습니다. 근데 막상 살 건 별로 없고 나중엔 시간이 남아서 카페에 앉아있었어요. 미니소에서 잘 때 꺼안고 잘 인형 사기 좋아요. 마운트 사맛은 2차 세계전쟁을 기리기 위한 곳인데 차타고 올라가서 미션하고 전망 보는게 좋았어요. 계단은 100개정도 올라가고 날씨가 안좋아서 십자가 전망대 위에 올라가보지 못한건 아쉬웠어요. 화이트 코랄 비치 리조트는 비가 너무 많이와서 계속 취소됐다가 간다고 했다가 번복됐던 곳인데 막상 가니까 비가 또 많이 왔지만 그래도 재밌게 잘 놀다왔어요. 전 수영을 못해서 튜브같은거 마트에서 사갔는데 그런거 하나 있으면 다같이 잘 놀아요. 짐은 방 하나 빌려서 거기다 다 놓고 풀장에서만 놀았어요. 비와서 이쁜 바다 풍경은 보지 못해서 아쉬웠어요. 요트투어는 날씨가 굉장히 좋을 때 가서 행복했습니다. 중간에 바다 위에서 수영할 수 있는데 날씨가 너무 덥고 귀찮아서 수영하는 사람은 세명밖에 없었어요. 점심은 줄리비 스파게티랑 핫도그에 산미구엘 애플 이렇게 먹었습니다. 다만 요트 안에 에어컨이 안나와서 계속 엄청 더웠어요. 토요일에도 늦잠을 못자는게

	힘들긴 했어도 전체적으로 항상 재밌고 좋았던 기억 뿐인 액티비티였습니다. 모든 액티비티 활동 중에 돈을 따로 걷은적은 없었고 리조트랑 클락에서 밥 먹을 때나 쇼핑할 때만 개인적으로 지출을 했습니다.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현지 기후 및 유의점 평일엔 아침부터 5시까지 수업이 있기 때문에 덩다는걸 잘 못느낍니다. 오히려 에어컨 때문에 추울 때가 많아서 긴팔을 챙기면 좋습니다. 주말에도 생각보다 덜 더웠어요. 오히려 한국와서 더 습하고 더 더워서 놀랐습니다.
안전	현지 안전 상황 수빅이 워낙 안전한 곳이라고 듣고가서 그런지 한국이랑 별 다르게 없다고 느꼈습니다. 다만 시내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많이 쳐다봐서 그런게 조금 신경쓰여요. 하버포인트나 에스엠몰 들어갈 때 소지품 검사를 하는데 현지인들 위주로 검사하고 외국인은 대충 검사해요.
숙소	기숙사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전반에 대한 평가 기숙사는 워낙 기대를 안하고 가서 그런지 생각보다 훨씬 괜찮았습니다. 원래 3인 1실인데 나이가 많으면 2인 1실을 주기도 해요. 월수금마다 아침 8시까지 빨래바구니 맡기면 뽕송뽕송하게 세탁해서 잘 개어놔주세요. 그거 찾아오면 되고 청소도 해주셔서 편합니다. 다만 엄지손가락만한 바퀴벌레가 방에 계속 나와서 밤마다 소리지르고 난리쳤습니다. 그럴 때마다 버디티쳐나 가드가 잡아주셨어요. 마트에서 벌레약 하나 사두면 엄청 잘 들어서 유용해요. 개미도 엄청 많이 나오고 도마뱀은 가끔 봤어요. 바퀴벌레는 주로 끝방에 나옵니다. 이사간 곳에서는 화장실에서만 아주 작은 바퀴벌레가 약을 쳐도 계속 나왔어요. 이사가기 전에도 풀장이 이뻐했는데 이사가고난 후 더 이쁜 풀장이 생겨서 아침 점심 저녁 밤 이렇게 맨날 풀장 보는 낙에 살았습니다. 이사가기 전에는 5층인데 계단밖에 없어서 매 시간마다 오르락 내리락하기 힘들었는데 이사간 후에는 수업은 전부 1층 건물에서 하고 숙소는 2,3층인데 엘리베이터도 있어서 편했어요. 통금은 다음날 수업이 있는 날엔 10시고, 수업이 없는 날에는 12시였습니다. 통금은 꼭 지켜야해요. 원래는 여자들 방도 서로 들락날락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 엄격했는데 이사가고 난 후에는 왕래가 비교적 자유로워서 더 많은 추억을 쌓으며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사오기 전에는 가드한테 아이디카드 맡기고 외출했다가 돌아올 때 소지품검사 하고 받아왔는데 인사도 못드리고 이사와서 아쉬웠습니다. 또 풀장에서 수영 많이

	하고싶었는데 막상 들어갔다 나오면 젖은 옷 처리하기 귀찮아서 많이 못 한게 약간 아쉬웠습니다. 이시간 곳에 제 방에만 번기커버가 없었는데 맨 날 말해도 결국 한국 올 때 까지 번기커버 없이 생활했습니다.
식사	학교식당 (O) 외부식당 (O) 기타 (O) 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급식은 주로 한식인데 정말 맛있어요. 한식이 하나도 안그리울 정도로 한국에서보다 한식을 잘 챙겨먹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식당들도 많이 가보고 싶어서 저녁은 주로 밖에서 먹었어요. 오누이라고 맛있는 한식당이 있어서 거기서 참치김밥 많이 먹었습니다. 소맥도 자주 마시고, 레드홀스라고 소맥 맛 나는 맥주 많이 마셔요. 그리고 숙소에서 그린위치나 졸리비 딜리버리 많이 시켜먹었습니다. 졸리비 알로하버거랑 스파게티, 그린위치 하와이안 피자랑 라자냐 이렇게 많이 먹었어요. 제리스그릴이나 코코라임, 밋플러스, 텍사스조, 페퍼런치. 엑스트림리 익스프레스 이렇게는 꼭 가봐야 할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통	시내교통 관련 보통 하버포인트로 많이 나가게 되는데 현지인들보다 항상 택시비를 더 많이 내고 이용했어요. FB가 있긴 하지만 리조트갈 때나 요트투어 갈 때 딱 세 번 타봤고 보통 콜택시를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지프니랑 트라이 시클은 첫 날 수빅투어할 때 딱 한번 타봤어요.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항목	비용(원)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유학허가증	685,000	
여행자보험	34,500	
사비	910000	(환전 600달러, 나머지 카드)
합계	1,629,500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

영어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하고 가면 더 많은 것을 얻어왔을 것 같습니다.
또 가면 체력적으로 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체력도 많이 길러가면 좋을 것 같아요.
종합비타민이나 홍삼 이런거 챙겨갈 수 있으면 챙겨가세요.
또한 기본적인 약들은 오피스에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바리바리 싸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사제 같은것만 병원에서 처방받아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버물리는 현지에서 사는게 좋겠다 싶어서 안사갔는데 그냥 한국에서 사가는게 편하고 좋아요. 운동화같은건 필요 없을 것 같고 (남자들 클럽가시려면 쪼리나 샌들 아닌 신발 필요하긴해요) 옷도 많이 가져갈 필요 없어요. 거기서 생각보다 옷을 많이 사게 돼요. 쪼리도 마트에서 편한거 하나 사서 신다가 버리고오면 됩니다.
그리고 티쳐들 이름만 부르면 실례예요. 꼭 앞에 티쳐 붙여서 말하세요.
영어이름도 미리 생각해가면 좋아요. 이름 특이하면 왜 이렇게 지었냐고 엄청 많이 물어보는데 바꾸지 말고 자기가 하고싶은 이름 하세요. 오히려 특이해서 입에 더 잘 붙어요.
그리고 몇 몇 선생님들은 사실 생각보다 나이가 적은데 처음엔 더 많다고 말하세요.
나중에 한국가서 폐복에 나이보고 놀랄 수도 있습니다. 졸업할 쯤에 선생님들이랑 선물 교환 많이하니깐 한국에서 미리 사가면 좋아요. 전 미리 사갔는데도 더 드리고 싶어서 현지에서도 더 사서 드렸습니다. 편지지도 미리 사가면 좋아요. 그리고 여자 선생님들은 방탄이나 엑소 엄청 좋아하셔서 그런거 미리 알았으면 굿즈 사서 드렸을텐데 하는 생각에 조금 아쉽기도 했습니다. 환전도 500달러면 여유롭겠지 했는데 유독 이번 배치가 많이 높고 많이 써서 500달러로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100달러 더 환전한 사람 정말 많았고 저도 그 중 한사람이었습니다. 사실 그걸로도 모자라서 카드도 여러번 사용했습니다.. 가기 전에 물갈이는 꼭 한다고 들어서 겁먹고 갔는데 심하게 한사람 몇 명 빼고는 그런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자 여자 리더를 한명씩 뽑는데 그 사람들이랑 탑 1,2는 졸업식날 스피치를 해요. 또 졸업식날 선생님들이 노래랑 춤 이런거 준비하셔서 보여주는데 학생들도 미리 준비해서 보여드리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졸업식 전에는 최종 테스트 보는데 첫날 봤던 테스트랑 비슷해요. 하지만 그 것 말고도 토익 스피킹 테스트도 있고, 필리핀 정부에서 치는 시험도 있어서 시험 칠 게 많아요. 정부에서 보는 시험은 영어로 수학문제 같은것도 풀고 생각보다 많이 당황스러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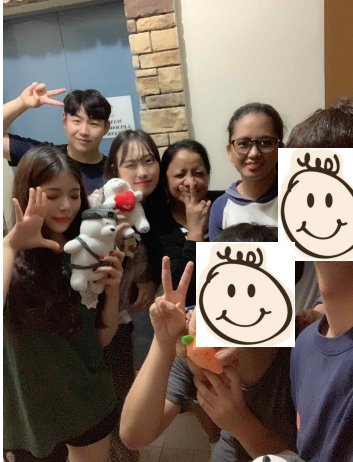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처음 붙었을 땐 마냥 신나고 설렜는데 갈 날이 다가올수록 겁도 나고 가기 싫은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필리핀에 와서도 신나는 마음 반 집 가고싶은 마음 반이었는데 한국 오고나니 그리운 마음이 정말 커요. 가서 처음 일주일 동안은 벌써 귀가 트였나 싶을 정도로 영어가 확 늘었다고 생각했는데 솔직히 가서 공부에 신경 하나도 못쓰고 잠 줄여가며 열심히 놀아서 체력도 딸리고 영어도 퇴화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건 순전히 제가

컨디션 관리를 못해서 그런거고 공부에 중점을 둘지 추억쌓는데 중점을 둘지 잘 스스로 잘 생각하고 조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긴 것 같으면서도 수업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이것저것 해볼 시간은 생각보다 적어요. 최대한 많이 경험해보세요. 마사지랑 네일도 싸니까 많이 받아보시고 바닷가 쪽도 많이 가보세요. 티쳐들이랑도 같이 나가서 시간보낼 수 있는데 그것도 좋은 추억인 것 같아요. 교수님과 많이 친해지고 싶었는데 그럴 기회가 적어서 아쉬웠습니다. 버디 티쳐들과는 매일 밤 커피를 하기 때문에 친 엄마같이 많이 친해져서 생각 많이나요.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그룹 클래스	커피타임(보통은 버디티쳐들만 하시는데 이날은 우리가 같이돌고싶다고 까불었다)
	
주말 액티비티 (마운트 사맛)	생일파티



주말 액티비티 (요트)



마지막 날 공항가기 전